

인문주의력사학의 진보성과 제한성

최 성 우

1. 서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과학의 연구대상은 일정한 력사적환경속에서 발생발전하여 사람들의 운명개척과 사회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상이나 이론, 력사적사실과 유적유물들입니다.》

사회과학연구에서 력사주의원칙을 옳게 구현하여 지난 기간에 제기되였던 문제들을 옳바로 밝혀내고 공정하게 평가하는것은 지금은 물론 먼 앞날에 가서도 과학적인 가치를 가지게 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서유럽나라들에서는 봉건적사회관계가 무너지고 자본주의적사회관계가 발생하던 시기에 신흥부르쥬아지의 대표자들과 귀족계급의 일부 선진분자들에 의하여 반그리스도교적이며 반봉건적인 인문주의사상이 발생하였다.

14~16세기에 서유럽에서는 인문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유럽근대문화의 시초를 마련하기 위한 운동인 문예부흥이 일어났다. 문예부흥은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 먼저 일어난 후 15~16세기사이에 에스빠냐, 프랑스, 영국, 도이칠란드를 비롯한 서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을 휩쓸면서 과학과 문화분야에서 일대 변혁을 가져왔으며 근대유럽문화발전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았다.

문예부흥기에 문학과 예술분야만이 아니라 력사학분야에서도 신흥부르쥬아지의 계급적요구와 리해관계를 반영한 새로운 사관과 이론, 서술방법들이 발생하여 서유럽력사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다.

인문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전개된 인문주의력사학은 서유럽에서 신학적이며 봉건적인 력사학을 타파하고 근대적인 력사학의 시초를 마련함으로써 근대력사학발전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인문주의력사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것은 학술적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지난 시기 학계에서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한 인문주의력사학의 진보성과 그 제한성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2. 본론

2. 1. 인문주의력사학의 발생

14~16세기 유럽에서 신흥부르쥬아지의 리해관계를 사상적으로 대변한 인문주의사상이 하나의 시대적인 사조로 널리 퍼지고 그에 기초한 문예부흥운동이 벌어지면서 력사학분야에서도 인문주의사상에 기초한 인문주의력사학이 발생하였다.

서유럽에서 인문주의력사학이 발생하게 된것은 우선 14~16세기에 이르러 봉건적억압과 착취, 반동적인 그리스도교회의 정신적지배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반봉건, 반교회투쟁이 맹렬히 벌어져 봉건제도가 붕괴기에 처하게 된것과 관련되어있었다.

인민들의 강력한 반봉건, 반교회투쟁에 의하여 봉건제도가 붕괴기에 처하게 됨에 따라 신학적이며 봉건적인 력사학도 파산에 직면하게 되었다.

서유럽에서 인문주의력사학이 발생하게 된것은 또한 봉건적사회관계가 무너지고 자본주의관계가 발생하면서 신흥부르조아지들의 리해관계를 사상적으로 대변한 인문주의사상이 출현한것과 관련되어있었다.

봉건제도가 쇠퇴하고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하는데 따라 유럽에서는 14~16세기에 신흥부르조아지의 리해관계를 대변한 인문주의사상이 하나의 시대적인 사조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인문주의사상이 널리 전파되면서 신흥부르조아계급의 리해관계를 대변한 인문주의사관이 출현하고 그에 기초한 인문주의력사학이 발생하고 발전하게 되었다.

유럽에서 인문주의력사학의 첫 발생지는 문예부흥의 발원지였던 이탈리아의 피렌체였다.

이탈리아에서 인문주의적력사서술의 첫시작은 《르네쌍스문화의 개척자이며 최초의 근대인》(《서양사학사상사》 일문 길천홍문판 1970년 44페이지)이라고 불리운 프란체스코 뻬트라르까(1304-1374)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그는 로마의 이름있는 정치가들과 군사가들의 전기인 《명인전》을 썼다. 한편 보까치오(1313-1375)는 이브로부터 당시의 나폴리너왕이였던 조안나에 이르기까지 무려 140여명에 달하는 서방력사에 이름있는 녀성들에 대하여 서술한 《녀류명인전》과 단떼의 전기인 《단떼전》을 썼다.

신이 아니라 인간의 생활과 그 성격을 보여주려고 시도한 뻬트라르까와 보까치오의 전기서술은 중세의 신학적인 력사서술에서 볼수 없는 새로운것이였다. 그러나 력사적사실에 어긋나게 인물들을 지나치게 리상화하거나 독자들의 호기심을 끌기 위하여 만화적인 개소들을 많이 서술하는 등 력사적인 내용과 문학적인 묘사가 뒤섞여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뻬트라르까와 보까치오에 의하여 력사서술에서 나타난 새로운 경향은 그후 레오나르드 부르니 아레티노(1369-1444)를 비롯한 피렌체의 사가들에 의하여 더욱 발전하였다.

피렌체의 사가들은 종전의 그리스도교리설명에 복종하던 력사서술을 배격하고 인문주의사상에 기초하여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력사서술을 진행하였다. 즉 하나는 진, 선, 미를 탐구하는 순수 학술적인 방향에서, 다른 하나는 통치계급의 계급적요구를 반영하여 정치적인 교훈을 줄것을 목적으로 실용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진행하였다.

피렌체를 중심으로 하여 진행되었던 력사서술의 새로운 경향은 베니스, 나폴리, 밀라노, 법왕령, 만뚜바, 제노아 등지로 퍼지였다.

이처럼 피렌체를 중심으로 하여 나타났던 력사서술에서 새로운 경향은 이탈리아각지에서 진행되고있던 력사서술에 큰 영향을 주어 오래동안 력사서술에 남아있던 중세의 신학적영향에서 벗어나 력사학을 새로운 발전의 토대우에 올려세우게 하였다.

그후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인문주의력사학은 서유럽에서 인문주의사상의 전파와 함께 잇달아 진행된 문예부흥운동속에서 유럽각지로 퍼지여 새로운 부르조아력사학을 낳게 하였다.

서유럽사학사에서 대표적인 인문주의력사가는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부르니 아레티노(1369-1444)와 그위차르디니(1483-1540), 마키아벨리(1469-1527), 도이칠란드의 플라씨우스(1520-1575) 등이었다.

레오나르도 부르니 아레티노는 12권으로 된 《피렌체국민사》, 《이탈리아사》, 단테와 베르가르카의 전기들을 저술하여 인문주의력사학의 성격을 뚜렷이 하였다. 그위차르디니는 1494년부터 1534년까지의 이탈리아력사를 담고있는 《이탈리아사》를 썼는데 이 책은 당시에 있어서 가장 인기있는 역사저서로써 유럽의 여러 나라말로 번역되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 《로마사론》, 《전술론》, 《피렌체사》 등 여러 책들도 집필하였다. 이러한 책들중에서 그의 역사적견해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책은 《피렌체사》이다. 《피렌체사》 제1책에서 마키아벨리는 게르만인들의 이탈리아정복으로부터 1434년까지의 이탈리아력사를 개괄하였다.

도이칠란드의 대표적인 인문주의력사가였던 플라씨우스(1520-1575)는 1559~1574년에 13권으로 된 《마그데부르크교회사》에서 카톨릭교회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인문주의력사학은 종교적금욕주의와 봉건적신분제도를 반대하고 《인간의 해방》과 개성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함으로써 신학의 부속물로 되어 교회와 봉건제도를 합리화하던 역사학을 중세기의 몽매와 그리스도교리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회과학의 한 분야로 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2. 2. 인문주의력사학의 진보성

2. 2. 1. 신학적 및 봉건적성격 극복

인문주의력사학의 진보성은 중세기의 신학적이며 봉건적인 역사서술을 타파하고 인간과 그의 이해관계를 기본으로 역사연구와 서술을 진행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인간을 무시하며 짓누르는 봉건적신분제도와 그리스도교리를 반대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간성을 내세우는 인문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카톨릭교적이며 봉건적인 역사학을 반대하였다.

문예부흥기에 들어와서 유럽력사학은 인문주의사상의 영향밑에 중세기의 그리스도교리의 설명과 교회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신학적사관을 타파하고 인간과 현실중심의 사관으로 발전하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우선 중세시기에 지배적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전통적인 신학적사관을 반대하였다.

서유럽에서 교부학의 최대의 대표자였던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354-430)는 인류력사발전은 신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신의 계책과 섭리에 따라 《지상국》으로부터 《신의 나라》로 발전한다는 비과학적이며 반동적인 신학적사관인 《신의설》을 내놓았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역사는 하느님의 간섭을 통해 이루어지고있으며 이미 정해진 하나의 종점을 향하여 직선적으로 나아가고있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 종점에 이르러서는 최후의 심판이 진행되어 지상에서 신의 역사는 끝나고 《영원한 제국》인 《신의 나라》가 시작된다는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설에 기초하여 인류력사발전을 《영아기》,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성년기》, 《로년기》의 6개 시기로 나누고 역사발전에 관한 신학적인 견해를 구체화하였다. 그의 견해에 의하면 6번째 시기에 해당되는 《로년기》가 개별적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박두한 시기인것과 같이 인류력사에 있어서도 종말기라는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말기는 그리스도의 출현으로 하여 구원된다는것이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인류는 그리스도교에 의하여 구원되어 다시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인류최후의 역사발전단계에 살게 된다는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에 따라서 사는 충직한 신앙자만이 천상의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복을 받게 되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충실한자들은 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내놓은 신학적력사관은 중세기에 지배적인 사관으로 되어 중세유럽력사학에 커다란 해독적작용을 하였다.

역사발전에 관한 이러한 신학적이며 그리스도교적인 견해의 궁극적목적은 봉건적착취제도를 불변한것, 신성불가침한것으로 정당화하는데 있다.

인문주의사상이 봉건제도와 그리스도교리를 반대하는데서 출발한것처럼 인문주의사상에 기초한 인문주의력사학도 역시 자기의 투쟁방향을 신학적사관을 반대하는데로 돌렸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반동적인 카톨릭교리에 기초하여 사회력사적현상들을 신의 의사에 의한것으로 설명하는것을 반대하고 역사를 신흥부르주아지의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이탈리아의 초기인문주의력사가의 한사람이었던 레오나르드 부르니 아레티노는 《피렌체국민사》서술에서 중세시기의 카톨릭교적인 신학적인 역사서술을 비판하고 사회력사적현상들을 종전의 《신의설》이 아니라 인간의 성격과 심리에 관한 예리한 분석에 기초하여 설명하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법왕들의 행위와 종교적싸움도 오직 정치적인 리해타산의 결과라고 설명하면서 모든 역사적사건과 사실들을 계급이나 당파의 입장과 리해관계의 견지에서 분석하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교회사위주의 신학적력사서술을 반대하고 역사연구와 저술에서 도시의 역사, 전쟁사, 외교사를 기본주제로 삼았다.

실례로 인문주의력사가들인 레오나르드 브루니 아레티노와 마키아벨리, 그위차르디니는 교회사나 단순한 교회와 수도원의 년보가 아니라 도시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도시에서 벌어진 당파들간의 투쟁을 서술하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역사서술을 진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료들은 중세기의 년대기나 년보들에 의거하였지만 사료들을 대담하게 취사선택하여 자기 계급의 요구와 리해관계의 견지에서 서술하였다.

이탈리아의 인문주의력사가였던 그위차르디니는 《초자연적인것들 혹은 인간이 볼수 없는것들》을 서술했던 사람들에 관하여 연구하는것은 《미친짓》이라고 카톨릭교적인 신학적력사서술을 비판하였다. 그는 《이탈리아사》에서 독자들에게 《선량한 사람은 신이 도와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이 벌한다.》고 하는파위의 설교는 황당한 거짓말이니 믿지 말라고 충고까지 하였다.

그리하여 9세기까지만 하여도 사가들이나 년대기기록가들의 중심사관으로 되고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설》은 인문주의력사가들의 저술들에서는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또한 역사서술을 통하여 봉건제도를 사상적으로 뒤받침하고있던 로마법왕과 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진행하였다.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사》에서 이딸리아가 당하고있던 모든 불행의 원인이 정치적통일이 이루어지지 못한다에 있다고 보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 첫째가는 원인은 로마법왕의 분렬주의정책에 있다고 로마법왕의 배족정책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도이칠란드의 인문주의력사가였던 플라씨우스는 《마그데부르그교회사》에서 로마법왕 그리고리우스 7세와 도이칠란드황제 하인리히 4세사이에 벌어진 서임권을 둘러싼 싸움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법왕을 패덕자, 배신자로 묘사하였다.

《마그데부르그교회사》의 서술로 카톨릭교회와 로마법왕의 《권위》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되자 카톨릭교회의 지배층들은 이에 대응한 역사서술을 진행하기까지 하였다. 로마법왕과 카톨릭교회는 바티칸문서고의 관장이였던 추기경 바로니우스에게 위임하여 《마그데부르그교회사》의 반카톨릭교적인 서술을 론박하기 위하여 《교회사》를 쓰도록 하였다. 바로니우스는 교회사가들에게 바티칸의 문서들을 통채로 개방하고 전 12권으로 된 방대한 량의 《교회사》를 저술하도록 하였다.((근대사학사)상 일문 길천홍문관 1962년 42페이지)

인문주의력사가들은 또한 전설이나 우화 그리고 경신적견해에 기초한 교회사가들의 결론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였다.

중세초기나 중기까지에 《년대기》나 역사서술에서 지배적인 비중을 차지하던것은 그리스도교에서 설교하는 《기적》과 성자들에 관한 서술이었다.

그러나 인문주의력사가들의 저술들에서는 그러한 《기적》에 대한 서술은 거의 자취를 감추고 그대신 신의 간섭을 필요로 하지 않은 인간의 사회경제생활이 기본으로 되었다.

만약 인문주의력사가들이 《기적》에 대하여 쓰는 경우에는 주로 카톨릭교적인 봉건력사학을 비웃는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리용하였다.

실례로 이딸리아의 인문주의력사가인 레오나르드 부르니 아레티노는 《피렌체국민사》에서 신의 《기적》을 조소하고 혹은 그것을 인간의 역할로 설명하는데 리용하였다.

이렇게 봉건적력사학에 대한 인문주의력사가들의 비판적립장은 12~14세기에 일부 봉건사가들이 선행시기나 당대의 사판과 사료에 가한 비판적립장에 비해 볼 때에 현저한 전진이었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또한 현실생활에 관심을 돌리면서 현실생활을 서술하는데 주의를 돌리었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중세기의 종교적환상의 외피속에 가리워졌던 현실세계를 보여주려고 하였으며 중세의 그리스도교사가들과는 달리 래세가 아니라 지상의 현실생활에 관심을 돌렸다.

반동적인 그리스도교리를 내용으로 하고있는 중세의 력사학은 세계와 인간의 기원을 성서에 준하여 해석하면서 인간의 《원죄설》을 떠들어댔으며 금욕주의와 무저항주의를 통하여서만 그것이 구원될수 있다는 반동적인 리론을 설교하였다.

그러나 문예부흥기에 이르러 력사학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신중심이 아니라 현실중심의 시대로 이행하기 시작한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맞게 중세기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사회적현상들을 사실주의적으로 서술하는데로 지향하였다. 그들은 현실생활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지식에 대한 갈망과 생활에 대한 락천적태도를 적

극 표현하였다.

문예부흥기 인문주의역사학에서는 역사서술이 세속화되었으며 정치적경향이 강화되었다.

중세시기 역사가들의 거의 대다수는 승려들이었으며 따라서 중세기의 역사서술은 철저히 그리스도교적인 교리설명에 복종하였다. 그리고 중세기의 역사서술에서는 그 서술형식에서 볼 때 수도원의 년보와 왕의 업적을 기록한 년대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년보는 매년, 매월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역사기록을 맡아보았던 사람들이 간단히 기록하여 만든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년보는 고대시기부터 작성되었다. 년보는 대체로 당대사람에 의하여 기록되었는데 한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기도 하고 년보를 작성하는 사업이 세월의 흐름속에서 대를 이어 진행됨에 따라 여러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년보에는 년보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으며 제목도 서문도 없다.

유럽에서 년보적기록방법이 역사서술의 한 형식으로서 출현하게 된것은 중세초기였다. 처음에 중세유럽에서 년보는 해마다 날자가 바뀌는 부활절날자를 정확히 알려주기 위한 일람표를 작성할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중세에 서유럽에서 기록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확한 천문학지식이 없었던 그리스도교성직자들이였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교회는 부활절날자가 성직자들이나 수도승에 의하여 잘못 계산되는 일이 일어날것을 우려하여 앞으로 몇년동안 부활절이 되는 날자들을 알려주는 일람표들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종교적인 목적에서 부활절일람표가 작성되었다. 그런데 이 일람표에는 점차 일련의 종교적명절들과 수도원장, 주교, 군주, 법왕들이 바뀐 사실들, 지역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 사건들이나 전쟁들이 기입되었다.

이처럼 년보속에 기록되는 사건들은 하나의 련관성속에 정리되지 못하고 다만 일어난 날자순서에 따라서 짧게 언급되었을뿐이였다. 그러다가 이러한 기록방법이 점차로 부활절일람표의 형식을 벗어나서 일종의 역사서술의 형식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기록방법은 영국의 노샘부리아지방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가 점차 유럽대륙에도 전파되었다. 특히 칼대제(742-814)는 프랑크제국내의 모든 수도원들이 정규적이고 체계적인 년보를 작성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리하여 중세의 모든 수도원들과 큰 성당들은 자체의 년보를 작성하였다.

세월이 흐르면서 년보는 세속적인 군주들의 위탁에 의하여 왕이나 왕조의 업적을 기록하기 위한 목적에서 서술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년보들은 카롤링왕조(751-987)의 초기부터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13세기에 이르러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들이 각각 자체의 년보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문예부흥기에 들어와서 승려들이 역사서술을 독점하던 현상은 거의나 없어졌으며 인문주의역사서술에서는 수도원이나 왕의 업적을 기록한 년보와 년대기가 더는 쓰이지 않았다. 년보와 년대기를 쓰는 경우에도 년보와 년대기적역사서술형식과 체계를 따랐을뿐 그 내용은 반봉건적이며 반그리스도교적이였다.

이렇게 인문주의역사학은 중세기의 그리스도교적인 신학적사관에서 많이 벗어났으며 역사서술에서는 중세기에 지배적이였던 교회, 봉건주의적요소들이 많이 없어졌다.

2. 2. 2. 근대적인 연구 및 서술방법의 기초 마련

인문주의력사학의 진보성은 근대적인 력사연구와 서술방법의 기초를 마련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우선 사료연구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사료에 대한 비판과 연구를 통하여 력사를 서술하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력사를 구체적인 사료를 가지고 서술하려고 시도하면서 사료의 가치 특히 신빙성정도에 많은 관심을 돌리였으며 전설적사료보다 문헌사료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하였고 고고학적자료와 기타 물질사료의 가치도 인정하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사료수집과 그 정리 및 고증에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문예부흥기에 많은 사료들이 정리되고 출판되였다. 사료에 대한 인문주의력사가들의 이러한 새로운 태도는 나아가서 력사연구의 새로운 방법을 낳게 하였다.

문예부흥기에 유럽에서는 력사문헌학이 발생하였다.

이 시기에 유럽에서는 그리스, 로마시기의 책들에 대한 문헌학적인 연구가 심화되였다.

인문주의자들은 그리스, 로마의 예술작품들과 저작들을 고전으로 보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면서 인문주의사상을 구체화하였다.

문예부흥기에 유럽에서 인쇄술의 발명으로 출판업이 성행하면서 많은 그리스-로마의 고전들과 책들이 출판되어 력사연구의 문헌적기초가 마련되였다.

고대시기에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손으로 씌여지며 수사본의 형태로 전해오던 그리스-로마의 많은 고전들이 학자들에 의하여 출판되였다.

실례로 1345년에 이탈리아인문주의의 선구자였던 베르나르도는 고대로마의 웅변가였던 키케로(B.C. 106-B.C. 43)의 저작물들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고대로마의 력사가였던 타키투스(55경-120경)의 《게르마니아》도 발굴되어 출판되였다. 1480년에 고대 그리스의 이름난 전기작가였던 플루타르코스(46경-127경)의 《그리스-로마비교영웅전》이 피렌체에서 라틴어로 번역출판되였으며 1575년에는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출판되였다.《플루타르코스영웅전》1 일문개조사 1935년 7페이지)

전유럽적으로 1460년부터 1700년사이에 적어도 17명의 고대사가들의 책의 복사본이 250만(2 500 000)부나 출판되였다고 한다.《브리타니카백과사전》영문 20권 1996년 569페이지)

이것은 문예부흥기에 유럽에서 력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력사연구가 그 이전시기보다 더 심화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라고 볼수 있다.

사료연구방법에서도 큰 전진이 이룩되였다.

이탈리아인문주의사가인 콤포니 레트(1428-1458)는 비문과 옛날 화폐들을 물질사료들로 리용하였다. 이와 함께 그는 사료를 매우 심중히 대하였을뿐아니라 그 연구와 고증에서 매우 세밀하였다. 이것은 사료학연구분야에서 인문주의력사학이 이룩한 새로운 큰 전진이었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문헌사료에 대한 비판적연구방법을 력사연구에 도입하였다.

문예부흥기 유럽에서는 문헌연구에 충실하면서 사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사료들을 언어학적으로 비판하여 사료에 담겨져있는 내용과 전승되고있는 사실들이 서로 부합되는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하려는 력사가들이 나왔다.

이러한 학술적경향을 가진 력사연구자들을 서유럽력사학에서는 력사문헌학과라고 한다.

문예부흥기 인문주의력사가들중에서 대표적인 역사문헌학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로렌 쾰 발라(1405-1457), 플라비오 비온도(1388-1463) 등이었다.

역사문헌학파에 속한 사가들은 오랜 연구를 진행하여 문헌의 원본을 복원 및 출판하였으며 문헌들의 순수성과 가치를 분석하고 점차적으로 증거들을 검증하면서 학문적인 역사저술들을 진행하였다.

발라는 사료의 진가를 언어학적분석을 통해 밝히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내놓았다.

발라는 당시 로마법왕과 대립되어 싸우고있던 자기의 후원자인 나뵈리왕의 요구에 따라 1440년에 법왕이 세속적권력에 대한 간섭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법률적근거로 되고 있던 《콘스탄티누스황제의 교회기증장》의 허위성을 까밝히는 《콘스탄티누스황제의 가짜 선물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썼다. 여기에서 그는 로마법왕이 콘스탄티누스황제로부터 받았다는 《선물》에 관한 이야기는 로마법왕자신에 의하여 날조된 허위라는것을 폭로하였다. 콘스탄티누스황제가 로마법왕에게 선물을 준 명세표를 일명 《콘스탄티누스황제의 교회기증장》이라고 하는데 이 기증장의 내용은 콘스탄티누스황제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할 때에 로마법왕 실웨스트르 1세(314-335)에게 감사의 표시로 로마, 이탈리아 및 서유럽의 여러 지역에 대한 종교상지배권뿐아니라 세속적통치권도 준것처럼 되어있다. 이러한 위조문서의 내용을 중세사람들은 그대로 믿어왔다.

그는 언어학적분석방법을 리용하여 기증장에 기록된 라틴어가 콘스탄티누스황제의 시대인 4세기의 언어가 아니라 8세기의 언어라는것을 판명함으로써 문서가 그리스도교회가 후세에 꾸며낸 허위라는것을 증명했다.

발라는 1444년에 출판한 책 《라틴어의 우아성》에서 정확한 라틴어사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단어의 의미는 자연적인것이 아니라 인습적이며 역사적인것이기때문에 변화되는 관습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계속되는 역사적발전의 관점에서 옛 문헌에 실려있는 문장의 원래 뜻을 찾아내고 정정하며 해설하는데 사가들이 중요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사료에 대한 언어학적비판을 처음으로 진행하였던 연구자였다.

발라의 영향밑에 비온도는 중세의 역사기록에 대한 비판적연구를 진행하였다.

비온도는 중세 영국의 년대기학자인 제흐리가 진행한 신화적인 역사서술을 비판하는 개요를 썼는데 이 원고에 《나는 결코 거짓말과 경신성으로 간주되는 그 어떤것도 하지 않을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비온도는 교문서연구가로서 사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전승되고있는 사실들의 진실과 거짓을 판명하는 연구방법을 처음으로 내놓았으며 비온도학파에 속하는 다른 연구자들은 증명서, 비문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역사서술에 응용하는 방법을 내놓았다.

플라비오 비온도는 유럽사학에서 처음으로 중세사의 시기구분을 진행하였다.

그는 서고트족의 왕이였던 알라리크(370?-410)가 이탈리아에 침입하여 로마를 점령하였던 410년부터 1410년까지의 역사를 서술한 《로마제국의 쇠퇴이후 역사》에서 선행한 봉건교회사가들이 내놓은 《로마영원설》을 반대하면서 로마제국과 고대사회, 고대문화는 A.D. 5세기경에 멸망하고 이때로부터 인류력사는 새로운 단계 즉 중세기(*medium aevum* *media Tempestas*)에 들어섰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이 책에서 중세유럽의 역사적시기들을 구분하였다. 이 점에서 볼 때에

비온도는 유럽력사가들중에서 유럽의 역사발전단계를 처음으로 구분한 역사가라고 말할 수 있다.

비온도의 중세사시기구분은 인문주의력사학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연구성과의 하나였다.

비온도는 중세의력사기록에 대한 비판적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일정한 사건과 사실들을 리해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다 수집하여 호상 대비적으로 그의 신빙성을 고증한데 기초하여 역사를 서술하였으며 인용한 사료의 출처를 밝히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해까지 달았다.

15세기 이전의 역사가들은 얼마 안되는 년대기나 기타 사료들을 이러저러한 각도에서 조립편집하거나 서술에 리용한 사료의 출처도 밝히지 않았지만 인문주의력사가들은 사료를 광범히 취사리용하는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건과 사실을 서술할 때에는 의거한 사료의 출처를 밝히기 위하여 주해를 달았다.

비온도의 새로운 역사서술방법은 17세기 서유럽나라들에 전면적으로 도입되게 되었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이 내놓은 연구방법들은 역사학분야에서의 큰 진보로써 근대력사학의 방법론적인 근본토대를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인문주의사가들은 또한 역사서술에서도 새로운 전진을 가져왔다.

마키아벨리는 중세의 수도원의 년보나 년대기와 같은 낡은 서술체계를 버리고 년대순에 따라 각종 사료들을 체계화하여 종합하는 새로운 서술방법을 시도하였으며 프란체스꼬 그위차르디니는 《이탈리아사》를 편년체로 서술하였다.

특히 중세시기에 승려들과 봉건지배계급이 역사서술에서 라틴어를 널리 통용한것과는 달리 인문주의력사가들은 역사서술에서 민족어를 사용하였다.

마키아벨리는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역사적사건과 현상들간의 깊은 내적연계를 논리적으로 서술하였다. 그는 역사적현상을 사람들의 활동의 결과로 보면서 이러한 대표적인 예를 13~14세기 피렌체의 사회정치투쟁사에서 찾았다.

이러한 역사서술방법은 종전까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없었던것으로써 역사서술방법에서의 커다란 혁신으로 되었다.

15~16세기 인문주의력사가들에 의하여 중세시기에 씌여진 《성자전》과 완전히 다른 근대적인 전기서술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근대적인 의미를 가진 최초의 전기》(《서양사학사상사》 일문 46페이지 길천홍문관 1970년)라고 불리운 보까치오의 《단떼전》, 조르지오 바자리(1511-1574)의 《이탈리아의 뛰어난 화가, 조각가, 건축가렬전》 등은 인문주의력사학에서 전기서술의 대표작으로 되었다.

그중에서 이탈리아의 이름난 미술가, 건축가이며 학자인 조르지오 바자리가 1550년에 쓴 《이탈리아의 뛰어난 화가, 조각가, 건축가렬전》이 유명하다.

그는 책에서 16세기의 이름난 조형예술가 180여명을 소개한 후 중세의 예술은 《암흑세기의 산생물》이라고 비판하면서 예술의 부흥은 토스카나의 화가였던 쥐오토(Giotto.1266-1337)로부터 시작되어 미켈란젤로시기에 와서 절정을 이루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리스-로마의 고전미술이 게르만족의 침입 특히 고트족들에 의해 파괴되어 중세 시기에는 락후한 고딕식이 류행되었다고 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미술은 발생, 성장, 로후, 사멸의 길을 걷다가 현재에 와서 다시 되살아나 그 완성의 경지에 도달하였다고 하면서

사학사상에서 처음으로 문예부흥(르네상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에 의하여 나타난 이러한 전기서술은 내용과 형식이 중세시기에 쓰여진 《성자전》과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는것으로서 근대적인 전기서술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도이칠란드인문주의력사가들에 의하여 많은 사료들이 정리되고 출판되었다.

16세기에 도이칠란드에서는 서고트인들의 법전, 칼대제의 법령, 《십자군원정》에 관한 사료 등과 같은 귀중한 원사료들이 수집정리되었으며 중요한 사료학적가치를 가지는 력사서들이 연구집필되었다.

이처럼 인문주의력사학은 중세의 신학적이며 봉건적인 력사서술을 타파하고 력사학을 그리스도교신학의 종속에서 점차 벗어나 독자적인 사회과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하는게 크게 기여하였다.

2. 3. 인문주의력사학의 제한성

인문주의력사학은 주로 신흥부르쵸아지와 귀족들의 리익을 대변한 력사학으로서 일련의 계급적 및 시대적제한성을 가지었다.

인문주의력사학자체가 인문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전개된 력사학이므로 인문주의가 가지고있는 계급적 및 시대적제한성을 그대로 띠게 되었다.

인문주의사상가들의 대부분이 부르쵸아 및 귀족출신들이였으며 따라서 그들은 계급적처지와 사회적 및 시대적측면에서 제한성을 가지지 않을수 없었다.

인문주의력사학의 제한성은 무엇보다도 사회력사적현상을 신흥부르쵸아지의 리익의 견지에서 보는 견해와 관점에서 출발하여 력사발전의 추동력을 신흥부르쵸아지와 귀족들로 본것이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우선 자기들의 계급적립장에서부터 출발하여 왕이나, 귀족, 법왕과 부유한 도시부르쵸아지들의 활동과 그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력사를 서술하였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인문주의력사가인 그위차르디니는 《통치자》들의 행동이 력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그는 통치자들의 행동의 중요한 계기는 그들에게 있는 야심이나 순간적욕망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렇게 론리를 전개함으로써 결국 모든 력사는 우연적현상이나 순간적인 심리적충동에 의하여 추동된다는 관념론적인 결론에 떨어지였다.

15세기 인문주의력사가들의 저술에서는 왕이나 봉건귀족, 법왕 등이 여전히 가장 중심적인 력사적활동인물로 등장하였으며 드물게 부유한 부르쵸아출신들이 력사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수 있는것으로 되어있었다.

실례로 마키아벨리는 피렌체의 약화의 원인을 강력한 군주정권이 세워지지 못한데서 찾으면서 강력한 국왕통치를 제창하였다.

그리고 도이칠란드의 력사가인 플라쎄우스는 《마그데부르그교회사》에서 중세시기 서임권을 둘러싼 로마법왕과 도이칠란드황제들사이의 지배권쟁탈전에 대하여 서술하면서 도이칠란드황제를 도이칠란드민족에게 고유한 모든 미덕을 갖춘 왕으로 묘사하였다.

이처럼 력사발전에 대한 인문주의력사가들의 견해는 왕이나 귀족, 도시부르쵸아지들이 력사발전을 추동한다는 주관관념론에 기초하여 설명한 반동적인것이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또한 부르쵸아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출발하여 인민대중을 력사

발전에서 부차적인 존재로 보거나 지어는 완전히 무시하였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역사서술에서 왕이나, 귀족, 법왕과 부유한 도시부르쥬아지들을 중심에 내세우고있는 반면에 인민대중의 투쟁을 적대시하여 모독하였다.

인문주의력사가인 레오나르드 브루니 아레티노는 피렌체의 상층계급에 속하고있던 부유한 상인과두들의 리해관계를 대변하여 1378년 피렌체에서 일어났던 촌피폭동을 《우둔한 천치들의 동란》이라고 비난하였다.

그위차르디니는 《이탈리아사》서술에서 피렌체의 가장 반동적인 도시귀족들의 리익을 대변하는 립장에 서서 만약 인민들이 정권을 잡게 되면 그것으로부터는 아무것도 기대할수 없다고 하였으며 인민들이 통치배들의 양보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혹하고 무자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설교하였다. 그는 1378년에 피렌체빈민들의 일으킨 촌피폭동을 《무뢰한들의 음모》라고 비난하였다.

이처럼 인문주의력사학은 철두철미 새로 자라나고있던 신흥부르쥬아지들의 리익을 대변한 부르쥬아력사학이었다.

인문주의력사학의 제한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중세력사학의 영향에서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것이었다.

인문주의시기는 봉건사회로부터 자본주의에로의 이행기였으며 아직 부르쥬아지가 형성기에 있었던만큼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으로 미숙하고 취약하였다.

봉건세력에 비하여 미숙하고 취약하였던 부르쥬아지의 요구와 리해관계를 대변하여 나온것으로 하여 인문주의사상은 봉건과 교회에 대한 비판에서 철저하지 못하였다.

일부 인문주의력사가들의 역사서술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의설》의 영향이 적지 않게 남아있었다.

최초의 인문주의자였던 베르라르카는 로마를 《신에 의하여 선출된 도시》로, 역사상에서 《최후의 국가》로 묘사하였으며 인민대중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그 존재까지도 부인하는 봉건귀족적사관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역사서술에서도 중세기적인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봉건적인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일부 인문주의력사가들의 역사서술에서는 마키아벨리를 내놓고는 거의 대다수가 년대기적서술형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것은 이탈리아의 인문주의력사가인 레오나르드 브루니 아레티노를 비롯하여 기타 사가들의 저술들이 중세기의 년대기적형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것을 통해서도 알수 있다.

인문주의력사학의 제한성은 다음으로 그리스-로마력사학을 이상화하면서 고대의 수사학적서술방법을 맹목적으로 모방하여 역사서술을 진행한것이었다.

인문주의력사가들은 고대를 당대현실에 대한 비판의 무기로 리용하였다. 그들은 고대를 인간과 사회의 완성으로, 당시로서는 도달할수 없는 본보기로 보았다. 그들은 고대가 낡은 노예제적관계속에 있었다는것을 모르지 않았지만 고대를 자유인의 자유로운 세계로서 고대의것을 모방, 부활시키는것을 리상으로 내세우고 역사연구와 서술을 진행하였다.

이탈리아의 인문주의력사가인 레오나르드 브루니 아레티노와 마키아벨리는 고대그리스나 로마에 있어서와 같이 역사를 《생활의 교사》로 간주하고 정치활동가들의 교양에 그

목적을 두고 역사서술에서 형식적인 수사학적기교에 치우치었다.

이처럼 인문주의력사가들은 고대그리스-로마사가들의 형식적인 문장서술과 수사학적기교에 큰 매력을 느끼면서 당대사람들의 감정과 정신에 맞는 문장서술에는 관심을 거의 돌리지 않았다.

문예부흥 그자체가 고대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연구하고 되살리는 형식을 띠고 진행된것만큼 인문주의자들은 고대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발굴하면서 그리스도교가 없었던 당시의 인간생활을 리상화하고 그것을 현실생활에 재생시키려고 하였다.

따라서 인문주의력사학도 인문주의문학과 예술 등과 마찬가지로 고대그리스와 로마의 력사학을 연구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게 되살리는 형식을 띠고 진행되게 되었다.

물론 인문주의력사가들의 력사서술은 실지에 있어서 단순한 고대그리스-로마사학을 모방, 부활시키는 한계를 넘어섰지만 그들자신은 항상 주관적으로 자기들이 고전적인 고대사가들과의 관계에서는 언제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리하여 인문주의력사가들은 고대그리스와 로마의 력사학을 맹목적으로 우상화하고 그 서술방법과 기교를 그대로 모방하게 되었다.

3. 결 론

인문주의력사학은 중세의 그리스도교적이며 봉건적인 력사서술을 타파하고 근대적인 력사연구와 서술의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력사적진보성을 가진다.

중세기적몽매주의와 종교적금욕주의를 반대한 인문주의를 사상적기초로 하여 전개된 인문주의력사학은 중세 서유럽의 지배적인 사관이었던 신학적사관을 반대하여 력사연구와 서술을 진행함으로써 력사학을 그리스도교리와 중세기적미신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인문주의력사학에 의하여 력사문헌학 등 력사연구의 새로운 분야가 개척되었으며 근대적인 력사연구방법의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처럼 인문주의력사학은 서유럽사학사에서 볼 때 력사학을 근대적인 학문의 토대위에 올려세우는데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지만 신흥부르쥬아지들의 계급적요구를 반영한 력사학인것으로 하여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을 가진다.

실마리어 신의설, 문예부흥, 인문주의